

2025 06
제245호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대덕구 홈페이지 E-BOOK으로 연결됩니다.

대덕 라이프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대덕 라이프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대덕라이프 제호 서체 : 글고운 캘리그래피 박진희 作

- 02 지면 소개 및 구정 소식
- 03 구정 소식
- 05 [호국보훈의 달] 대덕구의 보훈 시설을 알아보다
- 06 대덕구 맛집
- 07 [대덕구기관장협의회] 성낙준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장
- 08 열린의정
- 10 [단체 인터뷰] 비래동 행복한 공룡도서관
- 11 대덕톡톡

벚꽃·빛·음악이 어우러진 30일... 대덕구의 봄은 찬란했다

2025 대덕물빛축제, 주민 참여와 뜨거운 호응 속 안전하게 축제 마무리
30일간 야간경관·벚꽃·음악 어우러져... 세대 통합 축제로 발돋움 '호응'
3년 연속 안전사고·쓰레기·바가지요금 없는 3무(無) 축제 달성도

'긴급상황 정보카드'로 돌봄 골든타임 잡는다

주요 증상·복용 약물 등 주요 정보 게재
홀몸 어르신·장애인 가정에 부착 예정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본격 추진

심의위원회 개최해 25개 단지 중 14개 단지 선정
외벽 도색·방범용 CCTV 설치·충간소음 예방 지원 등 공사 최대 80% 지원

회덕동, 한국철도공사 대전조차장역과 기차여행 프로그램 운영

지역 관광 소외계층 가족 대상 '해피트레인' 사업 추진... 부산 명소 방문·체험

한남대학교와 저출생 대응 박차

'저출생 대응 프로젝트 운영' 업무 협약 체결... 프로그램 개발·운영 협력 '맞손'

대덕구 신탄진3동 경로당 개소

2025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전년 대비 0.88% 상승... 이달 26일 조정안 공시

대전 대덕구, 오정동 상인회로부터 이웃돕기 성금 1500만원 기탁받아

발행인 대덕구청장
 편집인 기획홍보실장
 발행처 기획홍보실(TEL:608-6603 / FAX:608-3811)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홈페이지 www.daedeok.go.kr
 발행일 2025년 6월 5일(제245호)

대전 대덕구, 신탄진 인천공항버스 운행 시작

대전보훈병원 셔틀버스 승강장서 탑승... 모바일 사전 예매 후 QR코드로 승차 가능

대전 북부권 주민들의 숙원인 교통 불편이 해소됐다.

지난 5월 15일부터 대덕구 신탄진에서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신탄진 인천공항 버스가 운행을 시작했다.

그동안 대전 북부권 지역 주민들은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기 위해 대전의 중심가로 역(逆)이동해야만 했다. 이는 교통 불편은 물론이고, 시간과 비용을 추가로 감내해야 하는 등 구민들의 일상에 경제·시간적 손실을 초래해 왔다.

대덕구는 이 같은 구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대전보훈병원과 충청남도청, 교통기관 및 운송 사업자들과 여러 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신탄진역 인근의 기존 설치돼 있는 대전보훈병원 승강장을 공동 이용해 신탄진 인천공항버스를 운행할 수 있게 됐다.

구는 이번 버스 운행으로 대전 북부권 주민들의 시간·경제적 손실 해소는 물론 교통 부담 감소 및 이용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탄진 인천공항버스는 오전 3시 20분,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4시 30분 등 1일 4회 운행될 예정이다.

탑승 장소는 신탄진역 맞은편 대전보훈병원 셔틀버스 승강장으로, 인천공항 제1·2터미널까지 하루 4회 왕복 운행하며, ‘버스타고’ 또는 ‘T머니 고’ 모바일 앱을 통한 100%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예매한 후에는 모바일에 발급된 전자승차권 QR코드를 버스 단말기에 스캔하여 탑승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공항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구민 편의를 증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생부터 성장 지원을 한 눈에... ‘가족 아동 여성 사업 핸드북’ 배포

출생 장려·영유아·관련 시설 등 안내 담아... QR코드 제작해 접근성 확대

대덕구가 보육, 아이 돌봄, 한부모가족 지원 등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가족 아동 여성 사업 핸드북’을 배포한다.

구는 많은 부모들이 출생신고 과정 및 보육지원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 자녀와 가족의 출생부터 성장까지 전 단계에 걸쳐 지원 내용을 ‘가족 아동 여성 사업 핸드북’에 게재해 정보 갈증을 해소하고자 했다.

핸드북에는 △여성·가족친화 사업(출생 장려, 아이 돌봄, 여성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육아종합마더센터, 가족센터) △영유아 사업(보육 정책,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친화 사업(아동친화, 아동복지시설 운영·관리, 아동 지원,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체계 강화, 드림스타트 사업) △아동 여성 관련 시설 및 지역 어린이집 현황 등이 담겨있다.

아울러 구는 QR코드를 함께 제작,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정책이 변경될 경우 수시로 업데이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가족 아동 여성 사업 핸드북’을 통해 부모들이 초기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순찰차 전용 거점 주차구역 조성

유연 대응 위해 ‘신고 집중시간 한정 운영’ 신속 출동·범죄 예방 등 구민 안전 보호 기대

대덕구가 112 긴급 신고 시 순찰차의 신속한 현장 도착 여건 확보에 나섰다.

대덕구는 지난해 10월 법1동 순찰차 전용 거점 주차구역을 조성한 데 이어 송촌동 먹자골목 일대에 순찰차 전용 거점 주차구역을 조성했다. 이번에 조성된 순찰차 전용 거점 주차구역은 평소 대덕경찰서 송촌지구대 관할 내에서 치안 수요가 가장 많으나, 주차 문제로 인해 신속한 출동에 제약이 따랐다.

이에 구는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순찰차 전용 거점 주차구역을 조성, 긴급 신고 시 빠른 대응은 물론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순찰차 전용 거점 주차구역은 주차 수요와 치안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간제로 운영된다. 운영 시간은 신고 집중시간인 오후 3~5시,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다.



여름철 집중 방역 소독 추진

오는 10월까지 해충 서식지 등 사전 방역 7~9월 야간 방역 추진... 실시간 방역 경로 추적도

대덕구가 감염병 예방과 구민 건강 보호를 위해 해충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방역 활동에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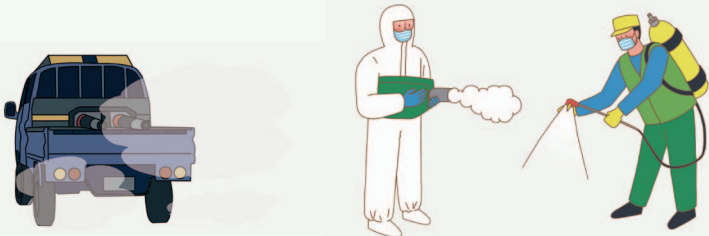
구는 기온 상승으로 해충 번식이 활발해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방역 일정을 조기에 수립, 3개 민간 방역업체를 선정해 오는 10월까지 약 6개월간 주기적인 방역 작업을 진행한다.

구는 먼저 지역 12개 행정동의 공원, 풀숲, 하수구, 도로변, 주택가 인근 등 해충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유충과 성충 구제를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여름철 모기 개체 수가 급증하는 7~9월에는 이론 원동기를 이용한 야간 방역을 병행, 모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방역을 추진하고, 감염병 발생 위험 증가 시기를 대비해 해충 서식지 사전 차단 등 철저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올해부터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활용, 방역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데이터를 전산화해 해충 취약 지역을 정확하게 파악해 총 발생이 잦은 지역에 집중 방역을 진행하는 등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방역 활동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 보건소 보건행정팀 (☎042-608-5452)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덕문화관광재단, ‘길 위의 인문학’ 2건 선정

일반형·자율 설계형 등 프로그램 기획 역량 입증 “생활 속 인문학 실천 강화... 지역 자원 바탕 프로그램 발굴 앞장”

대덕문화관광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서 일반형과 자율설계형 총 2개 부문에 동시 선정됐다.

대덕문화관광재단이 응모한 일반형 프로그램 ‘도시, 기억의 층: 대덕을 읽는 10가지 이야기’는 대덕구의 공간과 사람, 기억을 인문학적으로 풀어내고, 주민이 직접 걷고 기록하며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성과 일상을 새롭게 조명하는 시민 참여형 인문 실천 프로그램이다.

자율설계형 프로그램 ‘대덕에서 찾은 조선의 맛: 양반가 밥상 이야기’는 송촌동 소대헌·호연재 고택을 중심으로 전통음식을 매개 삼아 조선시대 양반가의 삶과 철학을 되짚으며, 고문헌과 인물, 음식,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을 재조명하는 생활 인문학 체험 프로그램이다.

재단은 이번 ‘2025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과 함께 걷고, 듣고, 나누는 생활 속 인문학 실천을 강화함으로써 대덕구를 생활문화 기반 대표 도시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재단 관계자는 “대덕구의 풍부한 인문 자원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을 새롭게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라며 “앞으로도 인문과 문화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발굴하고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걸어서 대덕속으로

대청수상레포츠센터

금강로하스 해피로드 길목 에코공원(대덕구 대청로 167)내에 위치해 있는 수상레포츠 시설이다. 통상 5월에 개장해 9월말까지 운영된다.

대덕구에서 유일하게 금강변 경치를 감상하며 수상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다.

수상레포츠센터에는 카약과 수상자전거, 오리배 등 수상레포츠의 짜릿함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기구들과 구명조끼와 헬멧 등 안전장비가 갖춰져 있다.

<참고자료> 대덕 역사·문화 관광포털 및 대덕 관광안내도



호국보훈의 달, 대덕구의 보훈 시설을 알아보다



대덕구보훈회관



대전 대덕구 덕암북로104번길 37, 39에 위치한 대덕구보훈회관은 지난 2015년 12월 22일 새롭게 문을 열어 올해로 만 10년째를 맞았다. 그간 상이군경회 등 지역 주요 보훈단체들은 각각 다른 공간, 비좁은 사무실을 사용해 오면서 큰 불편을 겪어왔으며, 이에 대덕구는 보훈 대상자의 복지 증진과 보훈단체의 위상 제고를 위해 대전시 소유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등 행정적 절차와 함께 노후화된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단장했다. 입주 주요 단체는 월남전참전자회,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유족회가 있다.

·A동(덕암북로 104번길 37)

단체명	회장	설립 목적	주요 활동
월남전참전자회	김경식	월남전 참전 유공자들의 명예선양 및 복지증진	국가안보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기여
6·25참전유공자회	김춘식	6·25 참전 유공자들의 명예선양 및 복지증진	대한민국 안보역량 강화 활동
고엽제전우회	김영하	월남전 고엽제후유증 유공자명예선양 및 복지증진	응급환자 수송 등 사회적 약자 권익보호
특수임무유공자회	김진만	특수임무 수행자 및 유족명예선양 및 복지증진	국민의 애국심 함양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 활동

·B동(덕암북로 104번길 39)

단체명	회장	설립 목적	주요 활동
상이군경회	김운배	전쟁, 군 공무수행 중 상해입은 군인·경찰관 명예선양 및 복지증진	나라사랑 운동 국민홍보
전몰군경미망인회	강순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부상 배우자 복지증진	각종 안보대회 자발적 참여
무공수훈자회	이홍식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등) 수훈자 명예선양 및 복지증진	국민 안보의식 함양 운동
전몰군경유족회	김수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상이 등 유공자 유족 복지증진	국민 안보교육 사업

대전보훈병원

대전시 대덕구 대청로 82번길 147에 위치한 대전보훈병원은 보훈복지 서비스 제공과 보훈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1997년 설립된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산하 소속 병원이다. 보훈병원은 보훈가족의 건강과 행복한 삶의 구현을 목표로 ‘존경과 예우, 책임과 신뢰, 전문성과 혁신, 소통과 협력’의 4대 핵심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6월 6일 현충일, 6월 25일 한국전쟁, 그리고 6월 29일 제2연평해전 등 순국 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자 우리는 6월을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부르고 있다.

대덕라이프는 애국정신을 기리고자 2023~2024년 6월 대덕구 내 8개 보훈단체 지회장들의 치열했던 삶의 발자취와 후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올해 6월호에서는 지역 주요 보훈 시설인 대덕구보훈회관(입주 단체 등)에 대해 소개하고, 보훈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요 시설인 국가보훈부 산하 대전보훈병원과 대덕구의 보훈 지원제도를 살펴봤다. <편집자주>



독립유공자 유가족과 무공·보국수훈자, 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은 병원비 등 다양한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총 387병상 28개 진료과 규모의 종합병원으로써 MRI와 CT, 혈관조영촬영기 등 대학병원 수준의 최신식 의료장비와 실력 있는 의료진 보유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대전·세종·충남지역 보훈대상자 18만명을 대상으로 최고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질환별 전문 재활 치료에 특화된 재활센터 운영 △최신시설 치과센터 운영 △체외충격파 쇄석기를 갖춘 비뇨기 전문센터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충청권 최대규모의 호스피스 완화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입원형 호스피스 완화의료뿐만 아니라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다학제 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도 체계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밖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으로 입원환자 간병비 부담 완화 △생애 맞춤형 통합의료복지 서비스 제공 △보훈병원-위탁병원 간 협력 강화로 편리한 전원 체계 구축 등 보훈 가족들을 돌보는 데 앞장서고 있다.



대덕구 국가유공자 지원제도

대덕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참전명예수당) 등을 근거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20만원, 배우자에게는 월 8만원을 지급하고, 보훈예우수당은 월 8만원이 지급된다. 우리가 가족, 연인, 친구와 현재의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과거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온 분들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잠깐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분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말고 진정으로 기리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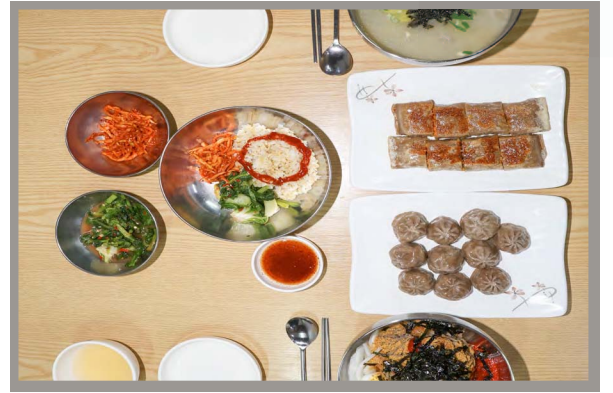
우리지역의 **맛집**을 찾아서



강원도의 참맛을 그대로

중리동 '한발옹심이칼국수&막국수'

- 대덕구 중리로 18, 1층(중리동 411-27) / 0507-1394-8556
- 옹심이 1만1000원, 옹심이에밀칼국수 9000원, 메밀물막국수 9000원
메밀비빔막국수 9000원, 메밀감자알만두(10p) 8000원, 메밀전병 8000원
- 영업시간 및 정기휴무: 11:30~15:00 / 연중무휴



밀가루의 도시 대전에는 빵, 칼국수 칼국수의 도시 대전에는 오랜 전통만큼이나 그 종류도 다양하다. 일반 칼국수, 얼큰칼국수 등 무려 20여 가지가 넘을 정도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 향토 음식인 옹심이메밀칼국수로 유명세를 타는 곳이 있어서 화제다. 대덕구 중리동 행정복지센터 근처에 있는 한발 옹심이칼국수&막국수(대표 이석모·피영미 부부)가 바로 그 맛집이다. 음식점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 이 집은 강원도의 향토 음식인 감자옹심이와 메밀을 주력 메뉴로 선보인다. 그 때문에 주 식재료로 쓰이는 감자는 일반 감자가 아닌 단맛이 많고 점도가 높은 수미 감자를, 메밀가루는 봉평산으로 강원도에서 직접 공급받고 있다. 강원도 영월인 고향인 피영미 대표의 식재료를 엄선하는 해안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한발옹심이칼국수&막국수 식당은 전통 방식으로 감자를 직접 강판에 갈아 옹심이를 만들고 메밀가루를 직접 손반죽해 메밀면을 뽑는 등 음식을 만드는 과정 대부분이 수작업으로 진행된다.

요컨대, 손이 많이 가는 음식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옹심이는 통감자를 강판에 갈아 물기를 짜내고 손으로 오랫동안 주물러야 찰기가 생겨서 반죽이 된다. 반복해서 반죽을 치대면 끈기로 어우러지는데 이때 펄펄 끓는 육수에 옹심이와 굵직하게 썰어 둔 메밀국수를 넣고 끓여 내면 된다. 육수는 다시마, 멸치 등 천연재료를 오랫동안 삶아 구수하게 우려낸다. 여기에 애호박과 당근, 김 가루가 고명으로 얹혀진다. 얼핏 간단해 보이지만 불 조절과 재료를 넣고 건져내는 타이밍 조절 등이 몸에 익지 않으면 그 맛을 내기 어려운 음식이다. 즉, 정성이 들어가지 않고는 맛을 낼 수 없는 음식이다. 막국수는 싱싱한 과일을 기본 베이스로 직접 육수를 만드는 것은 물론 면도 주문 즉시 뽑아낸 것을 사용한다. 이밖에 비빔막국수에 사용하는 양념장도 천연재료를 사용해 직접 만들고 있다. 특히, 이 집은 '감자옹심이'만 별도의 메뉴로 내놓았다. 뜨끈한 국물 속 투명하게 반짝이는 쫄득

함의 극치 '감자옹심이'를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입안 가득 퍼지는 부드러운 감자의 품미 덕분에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한다고 한다. 또, 이 집은 식전으로 나오는 열무김치, 무생채와 비벼 먹는 보리밥도 별미다. 자극적이지 않아 옹심이가 나오기 전 허기를 채우기에 제격이다. 특히, 열무김치 맛이 예술이어서 사 가시는 손님들이 꽤 많다고 한다. 피영미 대표는 "옹심이가 들어가는 메뉴는 매일 아침 생감자로 만들어 당일만 판매한다. 하루가 지나면 색이 바래기 때문"이라며 "사실 혼자 이 모든 과정을 감당해 내는 것은 어렵다. 감자를 손질해 강판에 가는 작업 등은 남편(이석모 대표)이 도맡아 해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힘은 들지만 자연 그대로의 맛을 손님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손님들의 반응도 너무 좋다"라며 "고소하고 걸쭉한 저의 고향 강원도의 맛 '감자옹심이'를 손님들에게 변함없이 따뜻하게 대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기로 우려낸 진한 국물에 불맛까지

중리동 '황기왕짬뽕전문점'

- 대덕구 중리북로37번길 65(중리동 386-28) / 042-627-1039
- 황기짬뽕 9000원, 짬뽕곰배기 1만원. 유니짜장 7000원 짜장곰배기 9000원, 탕수육 1만 7000원, 고추잡채만두 5000원
- 영업시간: 11:00~19:00(재료소진시 조기마감)
- 정기휴무일: 매주 월요일



대한민국 대표 음식 중 하나인 짬뽕은 진한 국물에 부드러운 면발도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나 자극적인 '불맛'이 주연(主演)이라 할 수 있다. 불맛과 불 향도 일품인 데다가 약재인 황기를 우려낸 진한 육수가 눈에 띄는 음식점이 있다. 대덕구 중리동 중리시장 남문 앞 골목에 있는 '황기왕짬뽕 전문점(김정호·서윤옥 부부)'이다. 황기짬뽕, 유니짜장, 탕수육, 고추잡채만두 등 메뉴가 딱 네 가지밖에 없는 이곳은 지난 1997년 문을 열고 28년간 현재의 자리를 우직하게 지키며 변함없는 맛을 자랑하는 노포(老鋪)다. 몇 년 전부터 아들인 김경모 대표가 뒤편을 잡고 2대째 가업을 이어가고 있다. 우선 이곳의 황기짬뽕은 국물이 약간 진한 스타일이다. 특히, 황기를 넣어 우려낸 육수를 사용함으로써 국물에서 은은한 한약재 향기가 배어나온다. 여기에 배추, 양파, 당근, 목이버섯 등을 잘게 채를 썰어 오징어와 함께 센불에 볶아낸다. 채소의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는 것은 물론 기름

지지 않고 굉장히 깔끔한 맛이 일품이다. 비주얼은 꽤 투박했지만, 국물에서 올라오는 깊은 불 향이 기대치를 한껏 높여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간이 세지 않은 끈적끈적한 옛날 짬뽕의 맛을 제대로 구현해 내고 있다. 이처럼 짬뽕에 진심인 '황기왕짬뽕 전문점'은 대덕구 출신 펜싱선수로 2020 도쿄올림픽과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을 딴 오상욱 선수의 '찐 단골집'이기도 하다. 나아가 TV 프로그램에도 소개되는 등 전국구 맛집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어 점심시간에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황기왕짬뽕 전문점의 환상적인 짬뽕 맛의 비결은 1대 창업자인 김정호 대표의 탁월한 wok(wok) 질에서 비롯된다. 김정호 대표는 "아주 높은 온도에서 단시간에 조리해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끊임없는 노력만으로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이지요"라며 "아

들(김경모 대표)도 조만간 그 경지에 오를 것 같습니다"라고 환하게 웃음을 지었다. 또, 이 집의 유니짜장은 양파를 잘게 다져 돼지고기와 채소만 볶은 짜장으로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메뉴다. 탕수육은 국내산 등심을 튀겨 그 위에 채 썬 사과, 적채, 오이, 양파, 사과를 듬뿍 올려 먹음직스러운 비주얼을 자랑한다. 여기에 석류로 만든 소스가 곁들여지며 겉바속촉의 상큼한 탕수육이 완성된다. 이밖에 바삭하고 살짝 매콤한 고추잡채 만두도 곁들여 먹기 좋은 메뉴다. 특히, 황기짬뽕 9000원, 유니짜장 7000원, 탕수육 1만 7000원 등 착한 가격에 손님들이 꼭 방문하게 되는 맛집 중의 맛집이라 할 수 있다. 김경모 대표는 "아버지께서 30여 년간 쌓아오신 내공을 단번에 따라잡을 수는 없겠지만 맛과 정성을 다한 음식으로 손님들을 섬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다부진 각오를 밝혔다.

대덕구기관장협의회



성낙준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장

나눔의 형태가 물질이든 마음이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자기 몸속의 일부인 '혈액'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 진정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아닐까.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며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는 헌혈이 안타깝게도 인구 감소, 교육정책 변화 등으로 급감하고 있다. 이에 대덕라이프 편집자는 대덕구 송촌동에 위치해 지역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의 길을 걷고 있는 성낙준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장을 만나 혈액 확보를 위한 해결 방안과 '생명나눔'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성 낙 준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장



Q.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 주요 현황과 역할을 소개한다면?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은 본사 혈액관리본부 산하 15개 혈액원, 3개의 혈액검사센터, 혈장분획센터, 혈액수혈연구원 등 20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전세종충남혈액원은 1974년 4월 현 위치인 대덕구 송촌동에 설립돼 총 19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며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안정적 혈액 수급 관리와 충청·전라권역 혈액 수급 총괄 중심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 헌혈 참여도 등 헌혈 변화 추이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소개해 주신다면?

먼저, 2024년(12월 말 기준)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헌혈 건수는 24만 0976건으로 2023년 6373건(0.03%p) 대비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헌혈 참여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팬데믹이 가장 심하던 2020년 23만 8825건, 2021년 23만 3429건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4년 24만 976건으로 회복됐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과 함께 헌혈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음을 시사합니다.

아쉬운 점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10대와 20대 헌혈 참여 건수가 70%였으나, 2024년에는 58%로 급감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저출생·고령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헌혈에 대한 교육과 경험의 부재 또한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 혈액원도 헌혈 장려 및 헌혈자 예우 증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헌혈의 날 선포식 △헌혈 유공자의 집 명패 전달 △헌혈홍보위원회 개최 등 지역사회 헌혈 문화 확산 및 조성 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Q. 혈액 보관 기간도 일종의 유효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적기 공급이 필수인데 어려움은 없는지?

만성 빈혈 환자나 수술 환자의 치료에 쓰이는 적혈구제제는 채혈 후 35일의 유효기간을 갖고 있으며, 혈소판감소증 또는 혈소판 기능장애를 가진 환자의 출혈 예방에 쓰이는 혈소판제제는 제조 후 120시간으로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이 같은 특성으로 혈액은 동·하절기 등 계절적 요인, 긴 연휴, 청소년들의 방학 기간 등이 맞물려 매년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드물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발생할 시 혈액을 제때 의료기관에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때마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대한적십자사의 혈액 수급은 전국 단위의 공급 체계에 따라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환자를 위한 혈액 공급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Q. 오랜 기간 적십자사에 근무하시면서 업무적으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또, 혈액원장 임기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기억에 남는 순간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습니다.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헌혈자 수가 크게 감소했고, 단체 헌혈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헌혈만큼은 절대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헌혈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재난 문자를 통해 국민들의 헌혈 참여를 호소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어렵게나마 병상에 계신 환우분들에게 혈액 공급을 계속할 수 있었던 점은 지금까지도 매우 뜻깊고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혈액원장 임기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는 고등학생 헌혈률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교육과 연계한 홍보 및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고등학생 헌혈 문화가 다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대전시와 대덕구 등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 공헌 활동

대표적 사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대전세종충남적십자혈액원은 안정적인 혈액 수급 관리는 물론 적십자 인도주의 이념 아래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급식 봉사활동 △취약계층 성금 기부 △제빵 봉사 등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사회공헌 활동은 지역사회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4년 헌혈 기부권 나눔장학사업으로 저소득층 고등학생 73명에게 총 73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혈액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헌혈 문화 확산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인도주의 기관으로서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Q. 개인적으로 대덕구에 대한 느낌을 말씀해 주신다면?

대덕구는 대청호, 계족산 등 자연 환경적 요소가 장점이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대덕구 송촌동에 위치한 동촌당공원을 자주 갑니다. 다양한 식물들이 어우러져 사계절 내내 아름다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Q. 끝으로 대전 시민과 대덕구민들에게 드릴 말씀과 당부사항이 있다면?

어려운 시기에도 꾸준히 헌혈에 참여해 주신 덕분에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대전세종충남혈액원은 앞으로도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헌혈할 수 있도록 헌혈 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며,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헌혈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덕구 및 지역사회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덕구의회-프랑스 디종 한글학교 우정 다져 의회 견학부터 한복 체험까지...문화교류의 장 열어



대덕구의회가 프랑스 디종 한글학교와 우정을 다졌다.

구의회는 지난 4월 24일 글로벌(세계화+지역화) 교육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프랑스 디종 한글학교 방문단과 교류 행사를 진행했다.

학생 14명과 인솔교사 2명으로 이뤄진 방문단은 이날 구의회에서 의회 홍보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본회의장 등 시설 견학을 했다.

또 전석광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 운영 등에 관한 질의응답을 했다.

이어 동춘당공원으로 이동해 공원 해설 투어와 한복체험 등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전 의장은 “먼 이국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는 관심과 노력은 우리에게 감동과 자부심으로 다가온다”면서 “우리나라와 프랑스 두 나라 간 우정과 교류가 더욱 깊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선주 디종 한글학교장은 “한국 지방의회 시스템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배우고 이를 다시 프랑스에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레미 알마(14) 학생은 “학교에서 익히던 한글과 한국역사와 문화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의 교류는 대덕구의회가 지난해 4월 프랑스 공무국외출장에서 다문화글로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디종 한글학교를 방문하면서 시작됐다. 한편, 디종 한글학교는 2006년 주불 한국 대사관 인가를 받아 설립돼 지난해 현재 재외동포 학생과 프랑스 학생 등 230여 명이 재학 중이다.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역사 등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대덕구의회, 지역 불교계와 소통 강화 부처님 오신날 기념 죽림정사 방문



대덕구의회가 지역 불교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구의회는 지난 4월 30일 오후 대덕구 대표 사찰 가운데 하나인 죽림정사(연축동)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날(5월5일)을 앞두고 화합과 나눔을 위한 지역 불교계의 역할과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다.

전 의장은 “부처님 오신날은 자비와 평등 그리고 생명 존중의 가르침을 기리는 날”이라면서 “우리 의회는 이해와 존중을 통해 우리 사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불교계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다양한 종교 단체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포용적 지역공동체 조성에 힘을 예정이다.

대덕구의회, 교통 민원 해결 위해 현장 속으로 주민 목소리 듣고 해법 모색



대덕구의회가 현장에서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구의회는 지난 4월 21일 오후 엘리프 송촌 더 파크(송촌동) 진입로 일대에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구의회는 이날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현장에선 일대 삼거리 보도의 확장과 삼거리 도로의 직각 교차로 조성에 따른 차량 통행 불편과 사고 발생 우려가 제기됐다.



지역 주민들은 도로 개선과 통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요청했다.
전 의장은 “오늘 현장방문을 통해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고

계족산 프로젝트, 대전 관광의 ‘미(래를 여는)·키(KEY)’다!



이준규 의원

대전시가 최근 ‘노잼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유잼 도시’로의 이미지 전환을 꾀하고 있다. 빵의 도시로 알려지며 전국적인 관광객의 관심을 끌고 있고, 지난 3월 개장한 ‘대전한화생명볼파크’는 프로 야구 열기를 도심 중심에 불어넣고 있다.

한국관광공사가 2024년 발표한 관광 트렌드에 따르면, ‘힐링·웰니스(건강 등)’와 ‘원포인트’ 여행이 새로운 키워드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성심당을 방문하는 ‘빵지순례’는 ‘원포인트’ 여행의 대표 사례로

소개되며, 대전 관광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트렌드는 도심 위주로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최근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대전의 관광 소비는 대형 유통시설에 집중되고 있는 반면, 지역 고유의 문화자산과 자연자원은 상대적으로 소외 받고 있다.

이는 유잼도시로의 전환이 지속 가능하려면, 지역 고유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안겨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계족산 시민공원 프로젝트(이하 계족산 프로젝트)’는 대전 관광의 외연을 확장하고, 도심-비도심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계족산은 대전의 자연, 역사, 문화를 품은 대표적인 명산으로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명소다. 국내 최초이자 최장의 황톳길이 조성된 이 곳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이색 힐링 장소다. 코로나19 이후 자연친화적 여가 활동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힐링·웰니스 관광지로서의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

이미 브랜드 가치가 검증된 계족산은 ‘도심 속 자연 힐링’이라는 현재의 관광 트렌드와도 완벽히 부합한다. 여기에 이번 사업을 통해 계족산에 휴식 및 숙박 시설이 갖춰진다면, 대청호 오백리길, 장동산림욕장 등과 연계해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매력도 한층 높아질 것이다. 이는 도심 외곽에 위치한 대덕구의 경제와 문화 활성화를 이끄는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전략적 가치가 높은 사업임에도 계족산 프로젝트는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대덕구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주민 의견 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왔지만, 정작 대전시 차원의 실질적인 행·재정적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사유토지 매입비는 2년 연속 대전시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며, 사업이 사실상 멈춰 선 상태다. 반면, 2022년에 시작된 ‘보문산 프로젝트’는 2026년 벌써 준공을 앞두고 있어, 대전시가 대덕구를 소외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구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계족산 프로젝트는 단순한 지역 숙원 사업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대전시 전체의 관광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적 투자다. 관광은 산업이다. 계족산은 대덕구만의 자산이 아닌 대전시 전체의 미래 자산이다.

이제는 대전시가 답해야 할 차례다. 계족산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정책적 결단이 절실하다. 대덕구민은 계족산이 지역의 자부심을 넘어 대전의 대표 관광지로 도약하길 바란다. 대전시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대덕구와 손잡고 이 사업을 힘 있게 추진해줄길 간절히 촉구한다.

사람냄새 나는 환경도서관

비래동 행복한 공룡도서관

비래동 새마을문고 회원 주축... 오디오북 제작, 인형극 공연 등 재능기부
자연·환경보호 중요성 담은 대청호 수호대 '고래 오형제' 인형극 선배
꾸준한 활동 속 '2024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 영상 공모전' 우수상 수상도
행복한 공룡도서관 회원들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 끼치는 활동 최선"



김다영
행복한 공룡도서관 회장



사람들은 '사람 냄새나는 공동체'에 목말라 있습니다. 상생과 협력으로 함께 잘사는 공동체를 위해 작은 밑알의 역할을 넉넉하게 감당해 내는 회원들이 자랑스럽고 고마울 따름입니다"라고 말했다.

해가 갈수록 추진 사업들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는 '행복한 공룡도서관'은 약 2년 전부터 '인형극으로 함께하는 온기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선 전문 강사를 초빙해 인형극 기초지식은 물론 주제 선정, 각본 쓰기, 연출, 음악 등 인형극 공연 전 과정에 대한 강의부터 들었다. 강의를 듣고 난 후 솔직히 김다영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의 반응은 그저 막막할 뿐이었다고. 하지만, 이들은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고민 하며 주제를 선정하고, 대본을 만들어 갔다. 특히, 인형은 천 조각, 베개 솜 재활용 등 일상생활에서 발견되는 폐품을 활용해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손바느질로 만들었다. 한동안 회원들의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성할 날이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 같은 각고의 노력 끝에 마침내 이들은 대청호를 지키는 고래 전설을 통한 자연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담은 대청호 수호대 '고래 오형제'라는 인형극을 성공리에 무대에 올렸다. 더욱이 이 작품은 방송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주관 '2024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 영상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는 기쁨을 토했다.



대덕구 비래동에는 실제 성우가 녹음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다양한 톤으로 실감 나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오디오북 제작과 한 땀 한 땀 정성스러운 바느질로 직접 만든 인형으로 어디든 달려가 인형극 공연에 나서는 모임이 있다.

비래동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주축이 돼 결성된 행복한 공룡도서관(회장 김다영)이다.

비래동에 거주하는 10여 명의 50대 여성 회원들로 구성된 '행복한 공룡도서관'은 약 7년 전부터 재치 발랄하고 열정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새마을문고에서 책을 읽고 도서 대여 등 단순한 봉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환경 관련 지식을 공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디오북 제작, 인형극 공연 등 재능기부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오고 있는 단체다.

'행복한 공룡도서관'을 이끄는 김다영 회장은 새마을문고 대덕구지부 김정화 회장의 든든한 지원에 힘입어 해마다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등 지역 여성들의 힘을 한데 모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비래동 새마을문고의 특색에 관해 고민하던 중 '환경 거점 도서관'으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회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토론과 회의를 이어갔다. 우선 환경 관련 책들을 많이 구비하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 책 읽기 운동을 전개했다.

뒤이어 추진한 사업이 오디오북 제작이다. 회원 모두가 저마다 개성 있는 목소리를 활용해 한 권의 동화책을 오디오로 만든 것이다. 다 같이 소리 내 한 권의 동화책을 같이 읽는 것이 참으로 어색하고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이들은 '노력을 이기는 장사는 없다'라는 격언을 마침내 입증해 냈다. 회원 모두의 목소리가 완벽한 하모니를 이룬 책! 이젠 귀로 들어요라는 오디오북을 완성해 많은 지역민이 이용하고 있다.

오디오북 제작이라는 알찬 결실로 자신감을 얻은 '행복한 공룡도서관' 회원들은 한발 더 나아가 환경 관련 애니메이션 동화 더빙사업을 펼친 것은 물론 매주 월요일마다 '줍깅(줍다+조깅) 데이' 행사를 열고 업사이클링(upcycling) 물품들을 만드는 활동도 진행해 왔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서로를 챙겨주며 이웃과 지역을 위해 작지만 소중한 나눔으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행복한 공룡도서관'의 존재 이유라고 설명하는 김다영 회장은 "갈수록 각박해지는 현대사회 속에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행복한 공룡도서관' 회원들은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 '2025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공동체 기획 사업 환경 분야 공모에 선정되면서 다시 한번 열정의 한 해를 보내기 위해 신발 끈을 조여 매고 있다.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정기 모임뿐만 아니라 거의 매일 모여 각본을 작성하고 인형을 만드는 등 늘 새로운 일에 도전하며 살고 있다. 다양한 독서 문화 콘텐츠인 인형극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온기 나눔에 힘을 모으겠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마음이자 목표다.

행복한 공룡도서관 김다영 회장은 "온기를 나눈다는 것은 타인을 위한 배려이자 '마음을 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멀리까지 마음을 쓴 만큼 내 마음은 넓어지고 넓어진 마음만큼 행복을 담을 수 있지요"라며 "봉사는 타인을 위한 실천이자 자신의 행복을 가꾸는 원동력입니다. 회원들과 함께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는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피부는 햇빛을 싫어하지만 진드기를 더 싫어합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

쯔쯔가무시증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감염,
9~11월에 집중 발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
4~11월에 발생

발열, 근육통,
오한, 발진,
경은 딱지(가피) 등

고열(38℃ 이상),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
의식저하, 혈소판 감소 등

예방수칙



야외활동 또는 농작업 전

- 진드기 노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복장 갖춰입기
(밝은 색 긴 옷, 모자, 목수건, 목이 긴 양말, 장갑 등)
-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기
- 작업복과 일상복 구분하여 입기



야외활동 또는 농작업 중

- 풀밭에 앉을 때 돛자리 사용하기
- 풀 위에 옷 벗어놓지 않기
- 풀밭에서 용변보지 않기
-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 기피제의 효능 및 지속시간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사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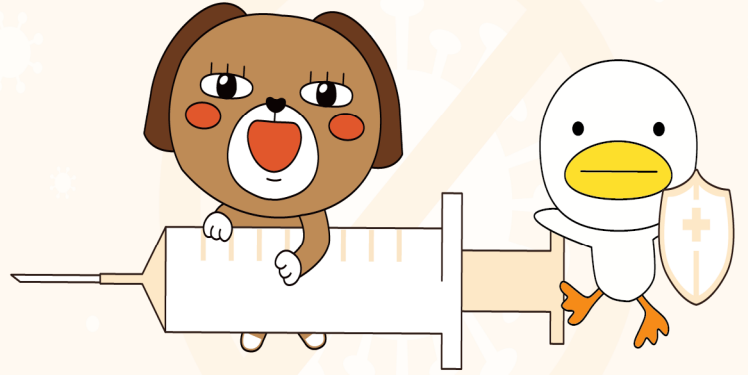


야외활동 또는 농작업 후

- 귀가 즉시 옷은 털어서 세탁하기
- 샤워(목욕)하면서 몸에 벌레 물린 상처 또는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확인하기
- 야외활동 또는 농작업 후 2주 이내 발열 등 증상 발생 즉시 의료기관(감염내과) 방문하여 진료받기

유행변이 대응 코로나19 백신을 무료로 접종해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이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접종대상 65세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접종간격 이전 접종 후 최소 3개월(90일) 이후

접종횟수 과거 접종력과 상관없이 1회 접종
※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접종 완료자도 접종간격(90일) 준수하여
5월 1일부터 **한번 더 접종 가능**

장 소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해외여행 준비 끝 완료?!

감염병 예방수칙

Check

첫째, 해외 여행 떠나기 전 check



해외감염병
NOW에서
여행지 건강정보
확인하기



해외여행 전
예방접종
·예방약·예방물품
챙기기

둘째, 해외 여행 중에도 check



비누로 30초이상
손씻기



음식은 익혀 먹고,
생수나 끓인 물
마시기



야외활동 시
모기기피제 사용
긴팔·긴바지·
모자 착용하기



야생동물 접촉
최대한 피하기
※ 동물에 물리거나,
긁혔다면 비눗물 세척,
병원 진료 받기

셋째, 해외 여행 다녀와서 check

Q-CODE

입국 시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
제출하기

질병정보 공공할 때
감염병의 의심될 때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귀국 후 감염병
증상 발생 시,
1339 상담하기

보건복지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대덕구보건소

소중한 나, 아름다운 마무리 연명의료결정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만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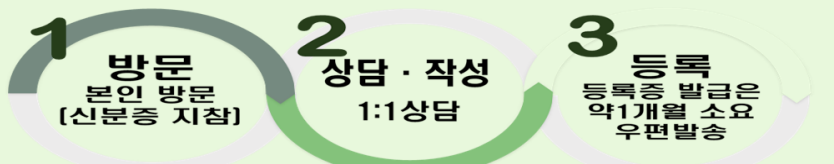
운영장소 및 시간 ※주말, 공휴일 제외

- ▶ 대덕구보건소 1층 연명의료 상담실
평일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 대덕구 치매안심센터 3층 상담실
매주 목요일 예약 시간 [상황에 따라 요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 ▶ 대덕구보건소 또는 대덕구 치매안심센터 직접 방문
※예약전화 후 신분증 지참(본인 확인용)

등록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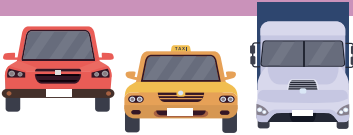


문의전화

- ▶ 대덕구 보건소 ☎042-608-5443
- ▶ 대덕구 치매안심센터 ☎ 042-608-4491

6월, 17기분 자동차세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자동차(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
- 납부 기간 : 2025. 6. 16 ~ 2025. 6. 30.



납부방법

금융기관 방문납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 및 고지서 없이 은행 CD/ATM기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부과내역 조회 및 납부 가능

계좌이체 납부

가상계좌 번호로 이체(고지서 앞면 하단에 기재)
지방세입계좌 이체(입금은행:지방세입, 계좌번호:전자납부번호)

ARS 납부

ARS(☎142211) 통화, 신용카드 납부 및 가상계좌번호 안내

인터넷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 사이트 접속 납부

자동차이체 납부

금융기관에 신청한 자동차세 계좌에서 납기 내 자동차세 (관할 자치단체,은행, 위택스 등에서 신청 가능)

※ 납세의무자 외 타인이 자동차세 납부하려는 경우 전자납부번호를 통해 납부 가능

※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가능하나 사용가능 카드 및 포인트, 차감액 및 차감시점 등 해당 카드로 별도 문의

※ 납부기한 경과 후 가산금 등 불이익 발생.

문의 : 대덕구 세원관리과(☎042-608-6248)

지역특화 숙련기능인(E-7-4R) 비자 전환 추천대상자 모집

- 접수자격
 - ① 대상: 대덕구 내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 ② 체류자격: 최근 10년간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으로 2년이상 국내체류자
 - ③ 소득: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2,500만원 이상
 - ④ 고용기업: E-9, E-10, H-2 체류자격 가진 외국인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존 숙련기능점수제 적용 사업장
- 접수기간 : 2025. 5. 12. ~ 12. 31. * 마감 전까지 상시접수
- 접수방법 : 대덕구청 별관 2층 경제과 일자리팀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대덕구청 홈페이지 참고



문의 : 대덕구 경제과 일자리팀(☎042-608-4513)

위생등급제, 외식문화의 품격입니다

- 위생등급제란?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제과점에서 위생수준이 우수한업소에 3개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지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
- 소비자는 위생등급을 확인하고 등급지정 업소 선택·이용
- 지정업소는 등급 표지판,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위생용품 등 지원과 홍보 효과로 매출 향상 기대



주민 여러분은 위생등급 지정 업소이용을, 업소에서는 등급제 지정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 대덕구 위생과(☎042-608-6893)

6·7월은 도로점용료 납부의 달

납부기한 25.6.16.~7.31.

**납부대상**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

**납부방법** 가상계좌 및 고지서

**문의사항** 대덕구 건설과 ☎042-608-5235



“행복한 기다림” 임산부 건강교실과 모유수유 특강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행복한 임신·건강한 출산을 함께합니다

대 상

대덕구에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신혼부부도 가능)

내 용

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체험형 강의

구 분	일 시	장 소	교육내용
임산부 건강 교실	1기 5월 9일 ~ 5월 30일 매주 금, 10-12시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 2층 프로그램실 (대덕구 대청로 47, 신탄진동)	1주차: 출산교육 2주차: 태교 공예 (뽕알이 만들기) 3주차: 신생아 및 산후관리 교육 4주차: 태교 공예 (배냇저고리 꾸미기)
	2기 6월 9일 ~ 6월 30일 매주 월, 14-16시	대덕구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실 (대덕구 동춘당로 187, 범동)	
모유수유 특강	6월 2일(월), 14-16시	대덕구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실 (대덕구 동춘당로 187, 범동)	수유 자세, 유축기 사용법 등 -오케타니 탄빙점 강사 초빙-

모집기간

2025년 4월 ~ 모집완료 시까지 (선착순 모집)

신청방법

전화 또는 방문접수

문 의

대덕구 보건소 가정보건팀
☎042-608-5484, 5408



2025년 대덕구 사진공모전

공모주제 | ① 대덕구의 잘 알려지지 않은 명소를 발굴하여 담은 사진
② 대덕구의 사계 풍경 및 즐거운 일상이 담긴 사진

제출기간 | 2025. 9. 1.(월) ~ 9. 26.(금) 18:00까지

시상내역 | 총 700만원(총 26개 작품 선정)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의 공고를 확인하세요. <https://www.daedeok.go.kr/>



